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건설소방위원회회의록

충청남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금산소방서

일 시 2022년11월14일(월) 15시

장 소 금산소방서회의실

(14시5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기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금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진종현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방 공직자께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맡은바 책임을 다해 주신 여러분께 도민의 대표로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한 해도 빈틈없는 화재 예방과 철저한 소방 안전 대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 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잘못

된 부분을 시정 개선토록 촉구함으로써 도정의 효율적 집행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소방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 의결에 의하여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출석 증인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5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이희동 대응예방과장은 개인 신

상으로 인해 불출석 사유서가 제출되었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현 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14일

금산소방서 진종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일동착석)

○ **위원장 김기서** 다음은 금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진종현 서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금산소방서장 진종현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이완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충청남도 최남단에 위치한 금산소방서를 찾아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금산소방서는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협소한 소방 청사의 문제를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으로 별관 증축을 통해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금산소방서 전 직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지도는 향후 업무추진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재완 소방행정과장입니다.

한창엽 현장대응단장입니다.

조현재 소방행정팀장입니다.

김준일 예산장비팀장입니다.

이종현 의용소방팀장입니다.

길홍일 대응총괄팀장입니다.

안신전 예방총괄팀장입니다.

김현식 소방특별조사팀장입니다.

한대희 구조구급팀장입니다.

박진하 현장지휘2팀장입니다.

길기만 현장지휘3팀장입니다.

오완택 금산119안전센터장입니다.

최춘규 추부119안전센터장입니다.

한경준 복진119안전센터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창식 119구조구급센터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이회동 대응예방과장은 연말까지 질병 휴직 중에 있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종합 평가 및 4개 분야에 대한 세부 추진 상황 그리고 당면 현안 업무 순이 되겠습니다.

169쪽, 기본 현황입니다.

금산소방서는 1읍 9면 106리의 행정구역을 관할하고 있으며, 소방 조직은 2과 1단 3안전센터 1구조구급센터 2지역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방 공무원은 정원 177명, 현원 170명입니다.

170쪽입니다.

의용소방대는 24개 대 620명입니다.

소방 예산은 정책사업비 15억 1800만원, 기본경비 3억 8000만원으로 총 19억원이며, 기동 소방 장비는 펌프차 12대, 구급차 6대 등 총 36대이고, 소방용수는 소화전 200개, 호스릴 소화전 67개 등 총 276개입니다.

특정 소방 대상물은 근린생활시설 1935개소, 공장 637개소 등 총 4759개소이고, 화재 중점 관리 대상은 복합 시설 5개소, 의료시설 3개소 등 총 15개소입니다.

다음은 171쪽, 2022년 소방 활동 실적입니다.

금산소방서는 1일 평균 26.74건의 소방 활동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화재는 80건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재산 피해액은 7억 17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2% 증가되었고 인명 피해는 사망 4명, 부상 1명으로 총 5명입니다.

구조는 41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8%가 증가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구급은 246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4% 증가하였습니다.

생활안전은 1468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7% 증가하였습니다.

174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종합 평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첫 번째, 대형 화재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중이용시설 등 관내 취약 대상에 대하여 특별 조사, 안전 컨설팅 등을 중점 추진하였고, 두 번째로 변화하는 소방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산악 사고, 수난 사고, 생활안전 등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 중심의 안전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소방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원거리 마을 등에 대하여는 호스릴 소화전 설치, 마을자치소방단 운영 등 주민들의 자체 대응 역량 강화에 주력하였습니

다.

네 번째로 코로나19 장기화 및 노인 고령화에 따라 지역 주민의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확진자 이송, 중증장애인 예약 서비스 등 소방의 모든 역량을 동원 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으로는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약 시설 화재 및 산불로 인하여 안타깝게도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은 월동기 화재 예방 대책 추진에 총력을 다하여 인명 피해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총 4개 분야 13개 추진 과제로 분야별 세부 사항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주요 분야 첫 번째, 빈틈없는 화재 예방 체계 구축 중 먼저 계절·시기별 맞춤형 화재 예방 대책입니다.

계절별 화재 취약 요인에 대한 화재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서 겨울철 기초 소방시설 보급, 화재 예방 홍보와 봄~가을 산불 감시, 산불 예방 캠페인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시기별 맞춤형 안전 대책 추진 사항으로는 명절과 부처님오신날, 대규모 행사 등 가장 취약한 시기와 장소를 선정하여 소방 특별 조사, 소방력 배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초 소방시설 보급 등 화재 취약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집중 관리를 추진하여 인명 피해 방지에 주력하겠습니다.

178쪽입니다.

두 번째로 화재 피해 우려 대상에 대한 중점 안전 관리입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안전 관리를 위해

소방 특별 조사 및 집중 홍보를 추진하여 비상구를 상시 개방토록 조치하였으며, 자율 안전 관리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안전 관리 우수 업소 1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관계인 의식 제고 및 능력 배양을 위해 중점 관리 대상 사회복지시설 등 51개소에 대하여 안전 관리 컨설팅을 143회 실시하였습니다.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58개소 120명에 대하여 특별 조사 및 관계자 안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위험물 운송 차량 가두검사 및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하여 관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세 번째로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소방 안전 교육·홍보 강화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소방 안전 교육 추진으로 유아·학생, 성인 등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알기 쉬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행사장 등에는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이동 체험 차량을 배치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소방 정책 및 시기·테마별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신문, 홍보 부스, 유튜브·페이스북 등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아울러 도민 안전 의식 제고와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다문화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소방 안전 영상 경연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불조심 어린이 마당, 119 소방 동요 경연 대회 등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80쪽입니다.

네 번째로 선제적 예방·대응을 위한 특정 대상물 조사입니다.

현장 활동 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소방 대상물 정보의 DB 구축을 위해 관내

대상물 602개소에 대하여 화재 안전 정보 조사를 추진하였으며, 시기·테마별 소방 특별 조사 추진으로는 취약 대상 165개소를 선정, 취약 요인에 대한 선제적 예방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내 대상 594개소에 대한 자체 점검을 추진하고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8개소에 대하여는 표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두 번째, 주요 분야 현장 중심의 대응 역량 강화 중 먼저 재난 현장 신속 출동 및 대응 기반 조성입니다.

주택 밀집 지역 및 전통시장 등 소방 출동로 확보를 위해 훈련, 캠페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으며, 주택가 도로에 규제봉을 설치하는 등 신속 출동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 소방용수 시설 276개소에 대하여는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오지 마을 등 사각 지역 소방용수 확보를 위해서는 저수지를 활용한 자연수 흡수 시설 2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소방관서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마을의 신속 대응을 위해 도상 훈련 및 현지 출동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호스릴 소화전 및 마을 공용 소화기함을 설치하여 화재 초기 주민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두 번째로 긴급 구조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을 위해 근거리 거주자로 구성된 신속대응반을 구성하였으며, 현장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불시 가동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자원 관리 및 현장 지

휘를 위해 대원 안전 관리, 동원 자원 관리, e-트리아제로 구성된 스마트 현장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소방 드론이 상시 가동될 수 있도록 전문 인력 33명을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2년 10월 21일에는 15개 기관 287명이 참여한 긴급 구조 종합 훈련을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세 번째로 선착 지휘관 및 현장 대원의 전문성 강화 추진입니다.

재난 현장 선착 지휘관의 지휘 능력 배양을 위하여 소방위 이상 지휘관 50명에 대하여 3개월에 걸쳐 단계별 전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에 강한 실전형 소방관 육성을 위해서는 고위험 대상 적응 훈련과 개인·팀 단위 숙달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현장 실전 감각을 향상시켰으며, 이에 대한 전술 훈련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특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는 화재 대응 능력 및 인명 구조사 등 전문 자격자 양성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이들 전문 인력은 최대한 적재적소에 배치하였습니다.

185쪽입니다.

네 번째로 재난 유형별 맞춤형 구조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입니다.

계절·시기별로 주로 발생하는 구조 서비스 이용을 감안하여 봄·가을에는 산악 구조 대비 산악 위치판 및 안전 시설물 점검 등을 추진하고, 여름철에는 내수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취약 지역 3개소에 시민수상구조대를 운영하였으며, 또한 수요가 급증한 벌집 제거 등 생활안전 대응을 위한 생활안전구조대를 15개 대 108명으로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등 화학 사고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관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체 17개소에 대한 실태조사 및 상황 대응 훈련을 36회 실시하였으며 화학 보호복, 누출 제어 키트 등 전문 장비에 대한 철저한 정비 점검을 통해 화학 사고 대비 태세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세 번째 주요 분야 도민이 믿고 찾는 고품질 119 서비스 제공 중 먼저 코로나 19 등 감염병 신속 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19 전담 구급대를 운영하여 확진자 등 490명을 이송하였고 충분한 감염 방지 물품을 선제적으로 확보하여 현장 대원의 감염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도에서 운영하는 접종지원센터 및 생활치료센터에 구급 인력과 구급차 등 소방력을 지원하였으며 금산군보건소와의 핫라인 구축, 본부 종합상황실과의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는 등 모든 역량을 동원해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두 번째 119구급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응급 처치 교육 강화입니다.

중증 응급 환자의 생존율 향상을 위해 기존 14종의 응급 처치에서 5종이 추가된 19종의 전문 응급 처치가 가능한 특별 구급대를 지정 운영하여 중증 환자 28명을 처치 및 이송하였으며 구급대원의 심정지 환자 소생률 향상 및 전문 능력 강화를 위해 지도의사를 통한 특별 교육 13회, 자체 전문 교육 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심폐소생술 실시 방법 및 신속한 응급 처치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교직원 등 858명에 대하여 현장

교육을 실시하고 일반인 대상으로는 SNS,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세 번째 의료 취약계층 대상의 특화된 119 서비스 제공입니다.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중증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에 대한 병원 이송 예약 서비스를 운영 중으로 현재까지 20명에 대해 21회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특화 서비스 추진으로는 임산부 전담 구급대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예약 이송 및 의료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혹서기 온열 환자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폭염 장비 9종 265점을 확보하여 폭염 구급대를 운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네 번째 의용소방대 역할 및 사기 진작 강화입니다.

지역 안전 지킴이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257개 마을을 위해 마을 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으로는 내 마을 안전을 위한 예찰 활동과 취약 대상에 대한 기초 소방시설 보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화목 보일러 사용 가구 51개소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주거용 농막 156개소에는 화재경보기를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고령 독거노인 등 생활 돌봄을 위한 어르신 돌봄 활동과 65세 이상 자살 고위험군을 위한 멘토링을 실시하는 등 생명 존중 활동에도 적극 동참하였습니다.

소방 업무 보조 역할 강화를 위해서는 화재 현장 지원을 위해 중장비 18대로

구성된 중장비 지원단을 발대하였고, 생활 주변의 안전 확보 및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생활 안전 구조대 및 제설 작업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사기 진작을 위한 행사 및 지원으로는 제1회 의용소방대의 날을 맞아 기념 행사 및 경연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우수 의용소방대 및 대원에게 성과 상여금과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의용소방대 사기 진작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92쪽입니다.

네 번째 주요 분야, 건전한 조직 문화 및 근무 여건 조성입니다.

먼저 청렴하고 공정한 직장 문화 조성입니다.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건전한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특별 복무 감찰, 복무 실태 점검, 청렴 교육 등을 시기별로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음주 운전, 성비위, 직장 내 갑질 등 3대 중점 비위 행위가 근절되도록 전 직원 근절 서약, 특별 순회 교육, 불시 점검 등 강력한 통제 및 복무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인사 제도 운영 및 합리적 성과 관리 체계 구축에서는 근무 만족도 향상을 위해 투명한 인사 제도 운영과 공정한 성과 관리를 통한 정당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3쪽입니다.

두 번째 소방 공무원 심신 건강 및 후생 복지 지원입니다.

소방 공무원 마음 건강 증진 및 스트레스 회복을 위한 지원 관리 강화에서는 직원 134명에 대하여 전문 심리 상담을 실시하였고 스트레스 회복력 향상을 위한 국내 배낭여행은 3개팀 9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본부 주관 힐링 프로그램

에 25명을 참여시켰습니다.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한 특별 건강 관리 지원으로는 전 직원에 대하여 특수 건강검진 및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편의시설 개선 등 및 후생 복지 지원에서는 심신 안정실 등 편의시설 6개소를 개선하였으며 장거리 출퇴근 및 독신자를 위해서 비상 대기 숙소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청사 방역 활동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194쪽입니다.

세 번째 소방 청사 기능 보강 및 근무 환경 개선입니다.

먼저 소방 청사 신·증축 추진 사항으로 기존 노후 및 협소한 청사 개선을 위한 금산소방서 별관 증축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열악한 의용소방대 청사 여건 개선을 위한 추부면, 남일면 의용소방대 청사 신축은 완료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제원119지역대 청사 이전 신축을 위한 설계 용역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쾌적한 근무 여건 조성을 위한 환경 개선 추진 사항으로는 직원들의 소통 공간 확보를 위해 본사 1층에 카페형 휴게실을 조성하였으며 현장대응단 사무실, 본서 샤워실 리모델링 등 5건의 개선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네 번째 소방력 강화를 위한 최신 장비 교체·보강입니다.

먼저 현장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소방 차량 교체·보강 추진 사항으로 노후 구급차 3대 및 중형 펌프차 2대를 신형으로 교체하였고 화재 현장 소방력 보강을 위해 대형 물탱크차 1대를 추가로 보강하였습니다.

소방 장비 보강 및 관리 점검에서는 송풍기 등 화재 진압 장비 157점과 개인 보호 장비 179점을 보강하였으며 소방 장비 상시 가동 태세 유지를 위해 전문 기관 정기 점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당면 현안 업무로 금산소방서 별관 증축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증가한 소방 인력 170명과 소방 차량 36대를 수용하기에 현 청사는 매우 협소한 상황으로 별관 증축을 통해 여건을 개선하고자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위치는 본 청사 뒤편이며 부지 면적은 945평, 연면적은 697평입니다.

건축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1개동이며 총사업비는 당초 계획보다 19억 8200만 원이 증액된 98억 7100만 원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2022년 9월 설계 업무 당선 업체인 '건축사무소 창'과 계약을 체결하여 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는 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4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 관리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금산소방서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신속하게 양질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리며,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격려 그리고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금산소방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1. 업무보고(금산소방서)

○ **위원장 김기서** 진종현 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에는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보고 내용이나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자료 등 금산소방서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완식 위원** 당진 출신 부위원장 이완식입니다.

(구급 출동 방송)

일선에서 우리 진종현 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어떤 비상이 떨어졌나요?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아닙니다.

구급 출동입니다.

○ **이완식 위원** 4명이 사망사건이 났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망사건 네 분이 났네요?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3건은 고령층 노인분들입니다.

한 분은 산불 화재 현장에서 본인이 쓰레기 소각을 하다가 산불로 발전되는 걸 막으려다가 -86세 할머니인데요- 질식으로 돌아가셨고요, 한 분은 새벽 시간대에 집에서 주무시다가 신고가 됐는데 본인이 인지를 못 하고 이웃 주민이 너무 늦게 신고가 돼가지고 완전히 전소가 된 상황으로 됐고요.

○ **이완식 위원** 화재로 인해서요?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예, 한 분은 조금 원거리에 -거기도 주택에 살고 계셨는데- 사후 화재로, 불이 난 것도 몰랐는데 불이 나가지고 마을 주민들이 신고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사망자가 나왔던 그런 건이었고요, 하나는 컨테이너 하우스에 20대 여성이 -정신질환자인데- 저녁시간에 잠을 자다가 본인이 화재를 인지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것도 마을 주민들이 너무 늦게 신고하는 바람에 출구 쪽으로 나오지 못해가지고 사망했던 사례입니다.

공통적으로 대부분 늦게 발견되거나 신고가 돼가지고, 또 저희 소방력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이완식 위원** 신고가 상당히 지연돼 있고 늦게 신고가 됐고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망사건까지 연결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예, 그렇습니다.

○ **이완식 위원** 의용소방대원님들의 마을 책임제 도입, 뒤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의용소방대원님들의 마을 책임제라면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계신가요?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저희들이 보통면 단위로 의용소방대가 조직되어 있는데요, 대원분들을 한 명 두 명 자기들 살고 있는 동네 위주로 해가지고 리 단위 마을별로 담당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교육이라든가 홍보라든가 마을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교육도 시키고 할머니, 할아버님들도 살펴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감지기라든가 보급 사업도 하고, 하여튼 담당을 해가지고 리별로 맡아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완식 위원** 그렇다면 사망사건이 이

렇게 4건 발생했는데 신고가 늦게 되는 바람에 사망사건이 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서장님은?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그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완식 위원** 우리 소방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사망사건이 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 한번 해 보세요.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우선은 저희들이 취약 가구를 중심으로 화재 초기에 스스로 인지할 수 있도록 화재경보기를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본인들이 화재경보기 울림 소리를 듣고 인지해가지고 우선 밖으로 나오시면, 대피만 하면 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된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원거리에 있는 주택들은 요즘 대부분 할머니라든가 할아버지, 독거노인분들이 혼자 사시는 데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불관리라든가 부뚜막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평소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위낙 소방관서로부터 원거리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조차도 대응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대상은 저희들이 마을을 정해가지고 직접 현지에 가서 어떤 위험요인이 있는지, 우리가 신속하게 소방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지역에 있는 의소대원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분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직접 그 마을 의소대원분들한테도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저희보

다도 먼저 어떻게 보면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이완식 위원** 화재 사건이 일어나서 신속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위험 요소가 있는 것을 발견해서 시정 조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예, 그렇습니다.

○ **이완식 위원** 그래서 의용소방대원님들이 마을 담당제로 하신다고 하면, 보니까 어떤 요소가 상당히 위험하다, 또 전기 누전, 부주의 이런 게 많이 있는데 부주의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인 어르신 분들은 부주의를 일으킬 수밖에 없죠, 인지능력이 약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런 경우에 부주의를 그냥 계속 바라만 보고 계실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하여튼 이거는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찾아뵙고 그분들의…….

○ **이완식 위원** 사망사건 일어나지 않게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예,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완식 위원** 사망사건이 일어난 이상은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그것은 정당화가 될 수 없다, 사망사건이 안 일어나야지, 뭐 아무리 잘하고 보고서에 뭐 이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사망사건이 일어난 이상은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이완식 위원** 하나 하나 위험 요소를 잘 짚어서, 의용소방대원님들의 역할이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시정하고 수시로 점

검하고 교육도 하고 또 설비 자체도 바꿀 거 있으면 바꿔서 화재가 안 나서 사망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예, 알겠습니다.

○ **이완식 위원** 그러시고 소방 청사가 상당히 열악하고 노후화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면적 2300, 그러면 총 부지 면적이 1000평이 안 되는데, 대략 932평 정도 되죠?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예.

○ **이완식 위원** 그정도 되는데 건물 빼고 이러면은…… 그 청사는 어디입니까? 이 자리입니까?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이 건물 바로 뒤편입니다.

부지가 같이 접해 있습니다.

○ **이완식 위원** 그러면 942평에 이런 거를 짓고, 추가로다가 신축 2개소 짓는 거는 그 자리가 아니죠?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그거는 다른 면지역에 있는 의용소방대입니다.

○ **이완식 위원** 다른 지역이죠?

그러고 나면 주차장하고 공간 넓이가 몇 평이나 되죠, 남는 게?

이 건물 들어서고 나면?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건물 들어서고 나면 주차 면적은 한 15면 정도 나옵니다.

실제 조경 면적하고 이런 걸 빼고 나면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면적은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 **이완식 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942평에 조경 면적 빼고 이런 거 빼고 저거 빼고 나면 실제로 주차라든가 이런 게 상당히 협소한 것 아니냐, 적어도 2000~3000평은 돼야 되는데, 거기에 앞으로 젊은 유능한 인재 소방 공무원님들도 오실 텐데 근무 여건

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조금 부족한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추후에 부지 내에 저희들이 필요한 필수적인 훈련 탑이라든가 훈련 시설 그리고 직원들 주차 면적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인접하고 있는 부지가 지금은 농지로서 저희가 구입하면 저희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다면 확장성은 없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소방본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추가적으로 그 옆 땅도 같이 확보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이완식 위원** 설계라든가 이런 걸 꼼꼼히 봐서 지금 기존에 활동하고 계신 또 기존에 들어선 소방서 이런 걸 180도로 탈바꿈해서 완전히 현대화로 추진이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사망사건 이런 게 일어나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과 예방, 예방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서**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광철 위원** 공주 출신 제2선거구 도의원 고광철입니다.

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방 인력 정원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정원이 177명인데 현재 인원이 170명이네요?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예, 그렇습니다.

○ **고광철 위원** 8명에 대해서는 본부에

서 인원을 채워주지 않아서 그렇죠?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예, 그렇습니다.

○ **고광철 위원** 그런데 소방이라는 게 적재적소에 인원을 해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빨리빨리 신속하게 되는데 인원이 이렇게 비어있으면 직원들이 좀 더 힘들어지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금산119안전센터가 53명인데 52명으로 돼 있네요?

그다음에 119구조구급센터가 28명인데 24명, 추부안전센터도 28명인데 26명인데 이런 중요한 데서,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는 인원인 데가 이렇게 비어있네요.

빨리 채워서 인원을 보충해 줘야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빨리 채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죠?

본부에서 나와 있어요?

○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최장일**(집행부석에서) 예.

○ **고광철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가 얘기 좀 해 주세요.

○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최장일** 소방행정과장 최장일입니다.

우리 도 결원률이 평균적으로 4.24%입니다.

전국 평균 6.09%보다 1.85% 낮고요, 현재 선발된 인원들이 소방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259명이 일선 서에 배치되면 서별 분산 배치해서 최소한 인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운영하겠습니다.

○ **고광철 위원** 그렇게 교육을 받고 오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나요?

○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최장일** 예, 100% 정원 확보는 안 되더라도 또 내년에도 신규 모집하고 교육하면서 채워나가겠습니다.

○ **고광철 위원** 하여간 인원을 빨리빨리 채울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만전을 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최장일** 예, 잘 알겠습니다.

○ **고광철 위원** 다른 공무원보다도 특히 소방 공무원은 인원을 빨리빨리 채워줘야 돼요, 그렇죠?

○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최장일** 그렇습니다.

○ **고광철 위원** 이건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여간 내년에 우리 금산부터 채워주세요.

○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최장일** 예, 노력하겠습니다.

○ **고광철 위원** 그리고 금산에는 인삼 축제가 상당히 크게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예, 그렇습니다.

○ **고광철 위원** 금산엑스포 해가지고 크게 열리고 있는데, 지난번에 공주백제문화제 열릴 때도 사람이 참 많이 몰려오고 그랬는데 금산 축제 같은 경우는 더 많이 몰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럴 때 안전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도 여기 축제할 때 와봤지만 축제할 때 인원은 어느 정도 모입니까?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전체적으로 열흘 동안 110만 명이 다녀갔다고 했는데요, 행사장이 금산 인삼 축제할 때는 한 곳에 집중돼 있는 게 아니라 시장하고 행사하는 데하고 따로 분포돼 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행사장에만 모이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터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장에는 소방력을 배치하는 게 사실상 특별한 행사를 할 때 빼고는 의미가 없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CP는 운영했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라든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인파이기 때문에 집중적

으로 인력을 배치해가지고 한다는 건 그렇게 저희들이 CP 운영하고 소방차하고 그다음에 구급차만 배치해가지고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지금 행사하면서 안전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몇 건 정도…….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지금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한 30여 건 정도 저희들이.

○**고광철 위원** 주로 어떤 사건입니까?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주로 구급 사건입니다.

오셔가지고 머리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노인분들 어디가 안 좋다, 어지럽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병원 이송까지 간 건은 6건 있는데요, 이건 어지럼증, 기력 저하, 손목 통증, 정신 쇠약,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 오신 분들이 노인 고령층이 많다 보니까 같이 오셔가지고 몸이 안 좋다고 신고가 돼가지고 구급차로 이송한 이런 건입니다.

○**고광철 위원** 그렇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이번에 이태원 사건 있지 않습니까?

10만 명 가까운 인파가 모여서 그 좁은 데 밀집돼가지고 밀리고 밀리고 숨도 못 쉬고 이리 떠밀리고 저리 떠밀리고 그런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금산 축제도 거기처럼 사고 안 나리라는 법이 없어요, 금산도 상당히 많은 인파가 몰려들면 그럴 때 안전에 신경쓰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고 예방을 위해서 그때그때 적재적소에 배치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거죠, 소방서에서요.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예, 추후에는 더 더욱 신경을 쓰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시청하고 협조해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요, 그리고 또 금산에 이렇게 오다 보니까, 도시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골목골목 도로가 비좁은 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런 데 화재 났을 때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이걸—화재가 났을 때—대처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그래서 저희들이 호스릴 소화전이라고 해가지고 마을 중심부쯤에 직접 소화전에서 물을 끌어다가 자체적으로 초기 진압할 수 있도록 이걸 67개소에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자치 소방단이 먼저 우리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그걸 가지고 초기 진압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을 공용 소화기함을 곳곳에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우선 초기 대응은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 재래시장, 전통시장 이런 데는 상당히 도로가 좁잖아요, 소방차가 안 들어가고.

불이 났을 때 인명 피해는 물론 상가가 전부 다 화재로 인해서 빠른 시간 내에 소실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대신 어떻게, 아까 얘기했지만 소방 줄로 해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 소방 줄로도 하려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거리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쉬운데…….

(구급 출동 방송)

잠시만 실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금산군만 해도 낙후되다 보니까 그런 지역이 상당히 다른 지역보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예, 그렇습니다.

○ **고광철 위원** 우리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사고 예방에 많이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서에는 드론이 있어요, 지금?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드론 두 대 있습니다.

○ **고광철 위원** 두 대 있어요?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예.

○ **고광철 위원** 논산은 큰데 한 대뿐이 없더라고요, 설명드릴 때는.

드론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드론도 같은 거 아니고 다른 거 두 대죠?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하나는 초기에 보급된 좀 작은 겁니다.

그래서 한 200여만 원 정도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물건을 들기에는 부적합하고 저희들이 산림이라든가 화재 현장에서 촬영해가지고 지휘용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용도로 쓰이고요, 하나는 인스파이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한 4kg 인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표라든가 다른 물건들을 실제로 요구조자라든가 이런 데 전달할 수 있는 인양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여기에 산악 실종 사고라든가 이런 게 종종 발생합니다.

그때 이걸 띄워가지고 위에서 살펴보면 효과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 **고광철 위원** 예, 드론이 상당히 화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비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드론이 물건을 들지 않고 지역을 촬영할 수 있는 드론 한 대하고 하나는 좀 더 큰 드론인가요, 또 한 대는?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예, 그거는 저희들이 4kg 정도까지 인양이 가능합니다.

○ **고광철 위원** 4kg까지 들어요?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예.

○ **고광철 위원** 하여간 드론을 이용해서 화재에 빨리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드론 교육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잘하고 계시죠?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저희들이 33명의 유자격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팀하고 구조대에서는 자격자가 그걸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광철 위원** 그래요?

하여간 앞으로 드론을 이용한 화재 예방 그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드론을 활용한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해주고 그리고 또 철저히 드론 교육을 해야 될 거예요.

하여간 드론에 대해서 제가 강조했으니까 드론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예, 알겠습니다.

○ **고광철 위원** 그리고 119 운영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119 출동하는 거, 개인이 또 운영하는 119가 있죠?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사설 구급차 말씀하시는…….

○ **고광철 위원** 예, 사설.

그 운영은 어떻게 서로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까?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위원님 제가…….

○**고광철 위원** 왜냐면 시민이 갑자기 사고가 났을 때 119를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119가 현장에 와서 병원으로 이송을 해 주잖아요.

그런데 병원에서 이 사람은 이 병원에서 치료를 할 수 없으니 큰 병원으로 옮겨야 되겠다, 그럴 때는 사설119로 이용을 해 달라고 그렇게 병원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면 여기 소방서에서 거기 병원에 가서 병이 좀 저기 해서 다른 데로 옮기니까 큰 병원으로 옮기는 것까지 해 주시는 건지.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지금 저희 금산소방서 관내에는 119 사설 구급차 운영하는 데가 없는데요, 제가 다른 데에서 운영한 사례를 보면 병원 측 요구에 의해서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응급한 환자인데 의료진이 탑승해서 빨리 어느 병원으로 이송해 달라” 119로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저희들 구급차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는 경우는 굳이 119구급차가 응급 환자로 분류하지 않고 그냥 일반 구급차로 이송해도 되는 경우에만 그런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사설 구급차 이용하려면 돈도 별도로 또…….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많이 듭니다.

○**고광철 위원** 많이 들죠?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예.

○**고광철 위원** 그래서 저는 사설 구급차보다 소방서에서 그 병원까지 옮겨 주고 그다음에 또 사설로 옮기라고 하면, 사실 심각하니까 다시 큰 병원으로 옮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설이 아닌 여기 소방서 구급차가 거기서 대기했다가 바로 또 큰 병

원으로 옮겨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사설은 자기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환자가 저기 한 거는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옮기는 과정도 여기 소방서 구급대가 안전하게 더 잘 옮겨 주는데 사설은 장비라든지 그런 게 그렇게 갖춰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빨리 시정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건 소방본부에서도 어떻게 대처를, 사설하고 소방하고의 구분을 어떻게…… 왜냐하면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최장일** 우리 소방 구급차는 소방에 119 신고가 들어온 사람들을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목적이구요,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갈 때는 병원 구급차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는데 우리 소방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산에서 병원까지 다 이송을 해 주다 보면 또 다른 환자가 발생하면 대응을 못 합니다.

그래서 청에서 정리를 했어요.

일단 가까운 데 또 보호자가 원하는 데로 해 주고 병원에서 이용하는 것은 병원 차 또는 사설 차를 이용하는 그런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고광철 위원** 아니, 병원 차를 이용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사설 차가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사설 차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환자를 안전하게 싣고 가지를 않는다는 얘기지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최장일**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은 소방청과 협의도 하

고 건의해서 위원님 말씀이 관철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사실 시민들이 편리하고자 있는 게 우리 국가 기관, 우리 구급대 아니겠습니까?

시설만 제대로 갖춰서 잘 해 준다면야 상관없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여간 협의해 본다니까 한번 협의해 보십시오.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최장일** 알겠습니다.

○**고광철 위원** 아까 소방서에 대해서 이완식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증축 문제, 지금 별관을 증축한다고 그러면 본관은 놔두고 뒤로 별도로 증축하는 거죠?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저쪽에 별관이 증축되면 이 본관은 뭐로 사용하나요?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이쪽 관은 현장 출동 대원 위주로 하고요, 저 뒤쪽에 건물 짓는 것은 소방 차고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 내근 요원들하고 회의장 이렇게 업무를 구분해서 설계했습니다.

○**고광철 위원** 그래요?

좌우간 보니까 건물이 오래되기는 됐더라고요.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예, 그렇습니다.

○**고광철 위원** 하여간 새로 증축한다니까 잘 된 거고요, 잘 증축해서 여기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요, 금산소방서장님을 비롯해서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분들 앞으로 사기 진작을 위해서 서장님하고 본부가 잘 협의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예, 잘 알겠습니다.

다.

○**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고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 천안 출신 도의원 김도훈입니다.

먼저 진종현 서장님 외 금산소방서 직원분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홈페이지 운영은 무슨 과에서 담당하는지 혹시 담당자가 지정돼 있나요?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소방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도훈 위원** 6월 10일 등록일 걸 보면 금산초등학교에서 여름방학 전에 초등학생·학부모 대상으로 물놀이 안전 교육과 심폐소생술 등을 원한다고 올라온 게 있었거든요.

그거랑 안전 교육 가능한지 그다음에 물품 대여가 가능한지를 올린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나요?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예, 안 그래도 오전에 논산 행감 내용에 있어가지고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요, 그 사항은 홈페이지에도 썼지만 또 공문으로 정식으로 전화로 요청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건 협조가 잘 돼가지고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거기에 답변을 달지 않은 것 같은데요, 홈페이지는 제삼자 외부인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마무리가 되면 조치 사항까지도 거기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 시키겠습니다.

○**김도훈 위원** 그거하고 며칠 전에 보면 지역 내 화재 취약 대상처를 방문, 화재 예방 안전 컨설팅을 시행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셨는지, 만족도는 어떤지 궁금하거든요?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지금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나지가 않아가지고 전처럼 돌아다니면서 내부 하나하나 살펴봐 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안전 관리자라든가 거기 관계인분들 만나서 전반적인 위험 요인이라든가 안전 요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거라든가 점검이라든가 이런 것들 잘할 수 있도록 당부하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도훈 위원** 혹시 금산초등학교뿐만 아니라 금산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지금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있나요?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올해도 858명 정도, 대부분 학교하고 공무원, 관공서 위주로 했는데요, 이태원 사고 이후로 교육청하고 군에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요청해 와서 겨울 동안 내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썩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도훈 위원** 심폐소생술 교육 장비 서비스 현황을 보면 몇 % 정도 대여, 모자라지는 않으세요?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장비는 충분히 여유가 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대여가 되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답변을…… 저희들이 CPR 교육용 마네킹은 41개 정도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 이거는 37개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관공서라든가 학교에서 수량을 빌려 달라고 하면 특별한 날짜에 교대로 해서 쓰기 때문에 대여해 주고 하는 데는 큰 애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걸 대여해 주면 본인들이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 또 나가서 교육을 해야

되다 보니까 어느 한 날짜에만 할 수 없고 계속 반복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일정을 짜가지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도훈 위원** 출동 7분 도착률을 보면 지금 17개 중에서 태안하고 금산이 좀 많이 늦어지거든요.

태안 같은 경우는 한 11분이 걸리고 금산 같은 경우는 한 9분 정도가 걸려요.

그런데 '20년도에는 8분, '21년도에는 8분 05초 이런데, 여기는 왜 시간이 줄어들지가 않고 늘어나죠?

다른 데는 지금 줄어들거나 비슷한 상황인데 도로의 문제점일까요, 뭐의 문제점일까요?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도로의 문제라기보다는 신고가 들어온 장소를 위치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최근 추세가 이런 도심 지역 화재보다는 면 단위, 리 단위, 원거리에 위치한 그런 지역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신고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좀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평균 9분대 정도 나오는데요, 여기가 산악 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조금 늦는 건 사실입니다.

○ **김도훈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기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국 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조철기 위원님,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만나 뵈어서 영광이고요, 오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서장님, 지금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 **금산소방서장 진중현** 지금 4개월 됐습니다.

○ **이용국 위원** 4개월 되셨고, 제가 요구한 이 자료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 **금산소방서장 진중현** 예, 한번 살펴봤어요.

○ **이용국 위원** 살펴보셨죠?

처음에 무거운 얘기를 좀 드리면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19년, '20년, '21년 평가를 보면 금산이 맨 하위에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보시고 느끼신 점이 있으신지?

○ **금산소방서장 진중현** 그래서 저도 취임하자마자 여기 와서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직원들도 스스로 노력은 했겠지만 평가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이거 뭐 적극적으로 해서 될 수 있겠나' 이런 패배의식 같은 것도 있고, 또 이 평가라는 게 한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기본 업무도 잘 해야 되고 각종 경연 대회도 나가서 수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업무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받다 보니까 모든 걸 평균 이상은 맞아야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거든요.

○ **이용국 위원** 제가 평가에 대한 어떤 성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자료를 살펴보니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첫 번째 뭐가 있냐면, 3037페이지입니다.

소방서별 생활안전 활동 현황이에요.

여기 보면 '20년, '21년 그리고 9월 현재까지 금산소방서에서 생활안전 활동 현황이 굉장히 타 시군보다 낮아요.

적은 인원으로 생활안전 활동을 하고 있는 걸 보니까 근무자, 공무원분들의 피

로감이 좀 많다, 이런 걸로 인해서 이런 지표까지 영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직원분들하고 소통을 얼마 안 되셨지만 앞으로 더 많이 하셔가지고 직원들의 애로 사항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인원 보충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금산소방서장 진중현** 예, 알겠습니다.

○ **이용국 위원** 그리고 서장님께서 말씀 주신 여기, 연관된 이야기에요.

179페이지예요.

소방 안전 교육 홍보 강화 이렇게 하셔서 두 번째, 소방 정책 및 시기·테마별 홍보 활성화 이렇게 다 하셨는데, 언론 홍보 487회, 행사장 3회, 유튜브·페이스북 등 SNS 211회,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언론 홍보하고 SNS 게시가 어떻게 돼 있는지 혹시 보셨어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안 보셨죠?

○ **금산소방서장 진중현** …….

○ **이용국 위원** SNS 금산소방서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금산소방서 페이스북 계정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 **금산소방서장 진중현** 페이스북은 제가 하지 않아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이용국 위원** 모르시죠?

이렇게 211회를 게시하려면 인원이 있으실 건데, 관리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도 지금 이걸 보고서 들어가 봤거든요.

팔로워는 30명이고 게시는 계속 올려대는데 아무런 반응은 없고, 이거 그냥 인력 낭비 아니겠습니까?

하실 거면 제대로 하시고 안 하실 거면 마셔야지, 이거 그냥 보여주기에요, '페이스북 있다' 보여주지.

그래서 이걸 보고 홍보 활성화를 하는데 SNS를 들어가 봤더니 제가 판단하기에는 형편없더라라는 걸 말씀드리고, 특히 요즘 CPR 교육 관련해서 문제 많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논산 다녀오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단체라든가 이장님들이라든가 입주자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과 소통을 해서 직접 가서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열 분이든 해 주는 게 낫지, 언론하고 페이스북은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 **이용국 위원** 그런 부분을 개선하셔가지고 다음번 2022년도 그렇고 2023년도 그렇고 우리 금산소방서가 지표도 그렇고 근무 환경도 그렇고 군민들의 반응도 그렇고 조금 더 나아지는 소방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공감하시죠?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실질적인 것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이용국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질문을 준비한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구급차 있지 않습니까?

사실 구급차는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어요.

11월 2일 날, 길을 비켜줬더니 가서 보니 카페에서 커피를 뽑아서 차에 타더라.

이거 일반 모르는 시민들은요, 저도 그랬지만 저는 서류를 받기는 했는데, 받기

전까지는 사실 구급차를 관리하는 기관은 소방서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일반 국민도 그렇고.

지금 같이 욕먹는 거거든요, 길을 비켜줬더니 거기서 커피를 뽑고 있고.

고광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우리 소방은 결정지은 게 전화가 오면 가장 가까운 병원에 이송을 하고 그 병원에서 병원에 있는 차 혹은 사설차를 불러서 이송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서산 출신이기는 합니다만 서산 같은 경우는 사실 구급차가 있어요.

그래서 최초 환자 이송은 의료원 같은데 해 주고 거기에서 서울이나 천안으로 가게 되면 사설차를 타고 갑니다.

가면 거기 병원에 바로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 거기에 있는 사설업체를 또 타야 돼요, 대기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비용이 10km 이내는 3만 원이고 특수구급차를 타면 7만 5000이에요, 기본이.

그리고 킬로당 1300원, 1100원씩 계속 올라갑니다.

이 근방에 있는 우리 충남 권역에 있는 분들이 그거 한 번 타시면 30만 원 내지 혹은 40만 원씩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는 기관이 복지환경과예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과 우리 도민들의 생각을 봤을 때는 이 사설 구급차 관리를 소방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는 하는데요,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 **이용국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사설 업체가 어떻게 환자들을 이송하는지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 중에서 오해하실까봐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병원 간 이송하는 걸 소방에서 안 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냐 하면 119종합상황실 통해가지고 정말 중증 환자의 경우는…….

○ **이용국 위원** 그렇죠.

중증 환자, 응급 상황에만 이송할 수 있죠.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응급 상황 이런 경우는 저희들 구급차로도 이송을 합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출동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에서 “병원에서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건 위원님들도 알겠지만, 가끔 언론에 나오는 개인 간에 어떤 유착 비리 이런 게 생길 소지가 있다 해가지고 그런 건 못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이용국 위원** 그런데 특히 어떤 상황이나 또 하나 말씀드리면 감염병에,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 환자를 받아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받아주는 분들도 있었고 실제로, 많은 언론에서 나왔었고, 이런 분들이 당장 우리 가까이에 없는 것만 언론에서 많이 접했지 않습니까?

당장 이게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산 주민이 코로나에 걸리셨어요.

그런데 서울에 있는 병원을 가셔야 돼요, 다른 거를 치료하러.

그런데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도 안 받아준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뉴얼 없으시죠?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답변드리기가 곤란스러운데요, 지금 현실적인 걸 제가 말씀드리면 그것 때문에 저희들 직원이…….

○ **이용국 위원** 예, 현실적인 거를 여쭙보는 겁니다.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우선 제일 문제되는 게 타신 분들이 본인이 “나 어느 병원으로 꼭 가야 되겠다, 거기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저희들 구급대원들이 힘들어 하는데요, 정말 응급 상황인 경우는 그거 무시하고 우선 응급 처치를 할 수 있는 병원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실제로 저희들 구급차가 해당 병원 응급실 앞에서 대기하는, 그렇게 해가지고 받아줄 때까지 버티는, 그러다 보니까 언론에서 ‘병원하고 119하고 약간의 마찰이 있다’ 이런 안 좋은 쪽으로 기사도 나고 하는데, 실제로는 코로나가 한참 막 퍼지는 시기에는 진짜로 그렇게 했습니다.

충대병원에서 안 받아준다고 해도 어차피 다른 데 가도 마찬가지로 받아주는 데가 없거든요.

그러면 받아줄 때까지 그 앞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렇다고…….

○ **이용국 위원** 병원이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를 그 환자들 그리고 환자 가족, 보호자가 알아보잖아요, 병원하고.

그러다 보니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는 게 119구조 구급차를 타고 가면 두 분 세 분이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병원과 소방 공무원들이 함께 움직여가지고 병원을 알아봐 주는 어떤 매뉴얼이라든가 대응 체계가 있는지를 여쭙어보는 거예요.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지금은 저희 구급대원들도 하지만요, 119종합상황실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연결이 돼 있는 핫라인

이 있습니다.

○ **이용국 위원** 그런 환자들이 있으면 상황실하고 같이…….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예, 상황실에서 저희들한테 어디로 가라 이렇게 통보를 해 줍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 본인이 “나는 꼭 저 병원 가야겠다” 이렇게 할 때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19종합상황실에서 병사하고 병원하고 다 수소문해가지고 만약에 대전에 없다 그러면 저쪽 밑에 전주로 보내기도 하고 부산으로 보내기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을 하기도 하고…….

○ **이용국 위원** 정리하겠습니다.

본인이 코로나에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저 병원을 가야 됩니다, 지금 다른 데가 아파서.

그런데 그 병원에서 “못 받아줍니다”라고 하면 그래도 구급차 안에서 현재 상황이 조금 심각해질 수 있으니까 대기할 수 있고 진료를 받을 수 있고, 그 와중에 119상황실하고 연계해서 다른 병원을 알아볼 수 있다 현재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용국 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코로나도 있고—아직 안 끝났지만—앞으로 또 어떤 감염병이 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감염병 속에서 응급 상황 때 병원에 가고 정말 필요할 때, 고생하시고 헌신하시는데 꼭 끝에 가서 안 좋은 평점을 받고 안 좋은 소리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우리가 지금 메르스도 그렇고 코로나도 경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 보자라

는 말씀의 얘기를 드렸고요, 사설차 또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사설차가 지금 금산에는 없겠지만 도 내에는 많이 있거든요.

그것 흐름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담당 관할 부서도 지금 복지환경으로 돼 있는데 장비 정도만큼은 그래도 소방의 인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법상에 거기 차에는 구급·의료 할 수 있는 기사랑 의료할 수 있는 한 명이 더 타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기사만 있어요.

기사하고 환자, 보호자만 가고 있어요.

열어서 보면 분명히 그렇게 있을 거예요.

법상은 그런데 보호자 말고 처리해 주는 분이 계셔야 돼요.

그런 거를 관리해 줘야 될 게 아마 소방서지 않을까, 교육도 그렇고.

그 부분 참고하셔서 앞으로도 도민을 위해서 많이 고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 **이용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서**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철기 위원** 아산 출신 조철기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종현 소방서장님께서서는 부임한 지 4개월 되셨다고 그랬죠?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예.

○ **조철기 위원** 4개월 되셨는데, 소방서

에 처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처음에 와가지고 제가 제일 문제의식을 느꼈던 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상반기에 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가지고, 앞으로 하반기에는 우리가 집중적으로 어디가 취약 요인인지 분석을 해서 사망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겠다 해서 원거리 취약 대상, 원거리 마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소방 활동을 할 것이고 대기를 할 것이고 예방 활동을 할 것인지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시행 중이고요, 제가 제일 처음에 와서 한 것은 그 사항입니다.

○ **조철기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4명의 사망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화재 원인 분석을 안 하셨다라고, 못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면 제 목소리가 좀 더 커졌을 겁니다.

다행히 원인 분석을 하셨다니까 화재 원인을, 요인이 어디에 있다라고 짚었습니까?

원거리·근거리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랬을 때 무엇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까?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이게 참…….

○ **조철기 위원** 화재 원인 분석을 하니까 우리 소방본부에 이런 요청을 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저희들이 가장 크게 문제의식을 느꼈던 건 뭐냐 하면 그분들이 대부분 취약 대상입니다.

혼자 살고 계시는 독거노인이라든가 아니면 약간 생활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보장이 안 되는 주택이라든가 컨테이너 하우스 이런 데 살고

있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기초 소방시설,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확보를 하고 또 기업체 이런 데서 후원을 받아서 보급하는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마을 어르신들이, 노인분들이 예전처럼 논밭 이런 데서 쓰레기 태우는 걸 지금도 계속 반복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씩 그게 산불로 되거나 주택 화재로 돼가지고 사망 사고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분들을 저희들이 일대일로 매일 붙어 다닐 수는 없으니까 결국에는 경로당이라든가 계속 찾아다니면서 경각심을 갖도록 교육하고 홍보하고, 또 살고 계시는 주택을 살펴가지고 취약 요인을 없애는 걸 반복적으로 하여튼 계속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 **조철기 위원** 서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본 위원님의 생각은 면적에 비해서 금산에 소방센터가 많지 않다, 그래서 골든타임을 놓친다, 제 판단은 그거였어요.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예, 저도 그런 위원님 생각에…….

○ **조철기 위원** 금산과 비슷한 면적을 가진 아산·보령·논산·예산·태안의 소방서에서는 아산에 6개, 보령에 4개, 논산에 4개, 예산에 3개, 태안에 3개, 금산에 몇 개죠?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3개입니다.

○ **조철기 위원** 금산에 3개요?

자료에는 지금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요?

119센터가 3개예요?

맞아요?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예, 안전센터가 세 곳입니다.

여기 직할센터하고 추부센터, 복진센터 이렇게 3개입니다.

○ **조철기 위원**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네요?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구조구급센터는 본서에 있는 구조대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이에요, 119안전센터는 3개입니다.

○ **조철기 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자료도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는 119센터가 하나로 돼 있어요.

○ **위원장 김기서** 어디, 이 자료상에?

○ **조철기 위원** 제 자료예요.

그래서 저는 본소 소방서 증축이 아니라 119센터가 우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3개라고 하면 타 시군의 면적과 비교해서 하나 정도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서너 개 되고 있는 거죠?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예, 그렇습니다.

○ **조철기 위원** 그래서 소방본부가 됐든 자료…….

○ **위원장 김기서** 여기서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어느 경위에서 누가 잘못했는지는 금방 파악하기 쉽지 않고, 지금 당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는 어려운 거죠?

○ **조철기 위원** 페이지 나와요.

2개로 돼 있네, 2개.

금산소방서가 2개로 돼 있어서 지금 이렇게 화재 상황에서 인명 피해가 나는 것은 센터 기능이 좀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어쨌든 인명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서장님께서 그런 원인 분석을 잘하셨다니까요, 우리 소방서에서 대부분 다 이렇게, 보령시 같은 경우에도 화재 분석을 쪽 하고 있으니까 화재 발생 건수도 줄어 들고 있더라는 거

예요.

그래서 서장님이 부임하신 지 4개월 됐으니까 이런 원인 분석을 통해서 화재 건수를 줄이는 충청남도 소방서의 제1소방서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간부 소방 공무원 여러분과 함께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예, 알겠습니다.

○ **조철기 위원** 다른 것도 한 가지만 할게요.

○ **위원장 김기서** 예.

○ **조철기 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 간담회를 하면서 금산에 무슨 산이 있느냐고 질문을 드렸을 때 두 군데 정도의 산이 있는 것 같던데 금산에서도 산악 사고가 증가하더라고요?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그렇습니다.

○ **조철기 위원** 산악 사고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주로 지금 산악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데가 서대산하고 대둔산입니다.

특히 대둔산 같은 경우는 레저 인구가 증가하면서 위에 올라갔다가 발목 부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 때문에 저희들한테 신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요, 또 최근에는 무리하게 산에 올라갔다가 길을 잃어가지고, 길을 못 찾아가지고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상시에는 구조대가 출동이 나오면 나가는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을이라든가 봄에 산악 인구가 많이 늘어나는 시기에는 저희들 센터에서 등산목 안전지킴이라고 해가지고 구조대원하고 구급차하고 등산로 입구에 가서 그분들한테 사고 예방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는 활동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조철기 위원** 예, 산악 사고에 대한 예

방도 계속하고 계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남의 산악 사고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금산소방서도 예외는 아닐 텐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민관 협조 관계를 통해서 산악 사고 발생을 줄이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예, 알겠습니다.

○ **조철기 위원** 또 한 가지는 이제 겨울철 들어서 화재 얘기인데 경량 칸막이 아시죠, 아파트에?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예, 알고 있습니다.

○ **조철기 위원** 활용법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모른다, 이런 활용법을 교육하거나 홍보하신 적 있으십니까?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보통 아파트 나가가지고 교육하고 이럴 때는 많이 했는데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이 아파트 같은 데서 주민 대상으로 교육했던 게 작년, 올해까지는 좀 드물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코로나19가 완화되면 저희들이 직접 주민들하고 합동 훈련도 하고 교육도 해서 잘 알고 쓸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조철기 위원** 각 소방대에서 겨울철 화재 예방, 사고 예방 홍보 기간에 경량 칸막이 활용법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소방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위원님께 넘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서** 조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한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 **신한철 위원** 천안 출신 신한철 위원입니다.

이번에 10월 21일 날 한국타이어 금산 공장에서 긴급 구조 종합 훈련 실시하셨잖아요?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예, 그렇습니다.

○ **신한철 위원** 타 지역에서 소방 장비 지원이 됐었나요, 그때도?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예, 그렇습니다.

○ **신한철 위원** 제가 이걸 여쭙보는 이유가 아무래도 금산이 가장 남부 지방에 있고 타 지역과 거리가 있으니까.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충북하고 대전에서도, 저희들이 평상시 진짜 재난이 났을 때 저희 인접 시도에서 응원받는 그걸 가상으로 했기 때문에 충북 차, 대전 차 다 지원받아가지고 같이 훈련했습니다.

○ **신한철 위원** 지금 금산에는 응급의료센터가 없잖아요.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금산에 응급의료센터는 없는데요, 저희들이 보건소하고 같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 **신한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응급의료센터가 없으니까 긴급하게 응급의료센터로 이동하려면, 제가 보니까 가까운 거리에 한 20km 중반 정도 해서 대전에 충남대병원, 성모병원, 옥천에 성모병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쪽으로 이동을 하시나요?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아, 지금 병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 **신한철 위원** 예.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저희들이 여기서 주로 응급의료센터 이송하는 것은 충남대병원을 제일 많이 가고 있고요, 거기에 병상이 없거나 응급실이 안 된다고 할 경우에는 건양대병원, 을지대병원, 우

선순위가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금산에는 새금산병원이라고 하나가 있는데 여기 응급실이 열악하기 때문에 정말로 시급해가지고 응급 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여기서 응급 처치를 간단하게 하고 다시 병원으로 재이송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한철 위원** 시간상 아무래도 문제가 있겠네요?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시간상 여기 30분 이상은 무조건 —금산에서 가면— 걸린다고 봐야 됩니다.

○**신한철 위원** 이게 소방서 내에서 응급의료센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예, 그렇습니다.

○**신한철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소방본부도 어려울 것 같고도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행정과장님이 본부 들어가시면 이 건에 대해서 좀 의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응급의료센터가 없어서 24~25km 걸리는 데까지 구급차를 타고 가야 된다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최장일** 예, 보건복지실하고 한번 협의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리고 지금 특정 소방대상물하고 중점 관리 대상을 보면 중점 관리 대상에 노유자시설도 하나고 근린시설도 하나고 공동주택도 하나입니다.

이게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금산에만 해도 제가 보니까 주공아파트나 대원칸타빌 등 해가지고 좀 규모 있는 공동주택이 3~4개 되는데 이게 관리 대상 기준이 있습니까?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중점 관리 대상이라는 것은 저희들 규정이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이 되거나 인명 사고라든가 대형 화재 위험성이 아주 높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요양원이라든가 병원급 그다음에 극장 이런 곳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을 하라고 돼 있고요, 나머지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심의를 해가지고 이 정도 규모만 되면 여기는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래서 금산은 지금 4개소가 그렇게 기본적으로 지정된 대상이고요, 나머지 대상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다른 시군에 비해서 대상물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여기까지 확대시켜 가지고 이 정도도 좀 관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지정한 대상입니다.

○**신한철 위원** 그게 공동주택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예, 대규모 대상이라든가 지하 주차장이 굉장히 크거나 이런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신한철 위원** 아인대원칸타빌아파트, 주공아파트, 금산렉시움 이런 데는 규모가 안 맞나요?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예, 규모가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따로 있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런데 왜 특정 소방대상물에 어느 소방서는 기타에다가 공동주택을 다 끼워놓고 어느 소방서는 공동주택을 따로 해 놓는데 이거 행정과장님, 뭐 이유가 있습니까?

기준이 있다는데 왜 이렇게 중구난방입니까?

지금 논산, 금산 두 번째 온 건데 다른

데도 그래요, 보령도 그렇고 청양도 그렇고 어느 소방서는 공동주택이 기타에 들어가 있고 어느 소방서는 공동주택이 따로 있고 기타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기준이 있다는데 왜 이렇게 소방서마다 중구난방으로 분리를 해 놔습니까?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최장일** 특정 소방 대상물이 약 24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다 넣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어쨌든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통일시켜서 앞으로는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들어가시면, 저희가 지금 이 업무보고서에 일반 기본 현황이 6개 소방서인데 나머지 소방서 전부 다 이 기본 현황과 특정 소방 대상물 중점 관리 대상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셔가지고 자료로 받아보고 싶어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최장일** 예, 그렇게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리고 아마 시골 지역에, 여기는 금산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화목 보일러 관련된 사고가 많을 것 같은데 화목 보일러 관련해서 어떻게 관리나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그건 저희들이 의용소방대를 활용해서 의용소방대가 직접 화목 보일러 설치 가구에 가가지고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업무보고서 내용에도 있지만 간이스프링클러를 직접 설치해 준 가구도 있습니다.

수도에다가 헤드만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화재가 실제 발생했을 때 소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한철 위원** 왜냐하면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출동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화목 보일러 사용을 많이 하니까,

화재가 나면 제가 볼 때는 출동하다가 다 전소가 되거나 이미 일이 벌어졌거나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화목 보일러 관련해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예, 알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리고 지금 소방관서 원거리 마을 관련해서 호스릴 소화전을 많이 중점적으로 놓으셨다고 하는데 이게 도움이 많이 됩니까?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직접적으로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올해에도 2건 정도 마을에서 불이 났는데 본인들이 직접 초기 진화에 성공한 사례도 있고요, 저희들이 보통 호스릴 소화전 설치하는 마을 중심에다가 25m 호스, 기본이 2개 해서 50m입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다 두 번을 더 여분을 넣어가지고 최대 200m까지는 수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자기 마을 정도는 커버가 될 수 있도록 해서 본인들한테도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한철 위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제도는.

자격 취득을 좀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자격 취득 자체가 교육 같아요, 자격을 취득하려면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자격을 취득한다는 자체가 자긍심이나 동기 부여 고취에도 좋을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뒤통지 않게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신한철 위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사기 진작을 위한 행사 및 지원 해

가지고 연말 성과 평가를 통해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하니까,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원하는 게?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그게 활동 실적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대회에 나가가지고 우수한 실적이 있거나 하면 보통 때는 4시간 기준으로 수당을 줬다고 하면 그 대에 대해서는 6시간, 그래서 한 시간 정도를 더 추가해서 더 한 걸로 인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대에 비해서 더 열심히 했다는 보상 차원에서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는 주고 여기는 안 주고 이런 건 아니고, 다만 조금 더 노력했다는 걸 시간 개념으로 1인당 1시간 정도씩 더 활동한 걸로 인정해가지고 등급을 매겨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한철 위원** 현재 시간당 출동 수당을 더 부여한다는 말씀이잖아요?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예, 그렇습니다.

○ **신한철 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금 알기로는 성과상여금이라는 게 따로 주어질 수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그건 아니고요, 보통 우리가 4시간 정도 준다 그러면 여기는 5시간 주고 여기는 제일 잘했으니까 6시간 인정해 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의 차등성을 주기 위해서, 그래야만 거기에서도 의욕을 가지고 더 열심히 하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신한철 위원** 그러면 표현을 좀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의용소방 연구 모임을 하고 있는데 성과상여금 자체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그거는 제가 본부 의용소방팀에 한번 건의를 하도록, 전

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만 쓰는 게 아니라 도에서 다 공통적으로 쓰기 때문예요.

○ **신한철 위원** 어쨌든 좋은 제도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신 장비 교체 보강하시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소방 장비 3대가 '22년도에 들어온 걸로 나와 있거든요?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예, 그렇습니다.

○ **신한철 위원** 지금 보시면 교체가 중형 펌프 2대, 보강이 대형 물탱크 1대 그리고 지금 화재 조사 전담 차량은…….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 **신한철 위원** 아직 안 들어온 거고요?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예, 그렇습니다.

○ **신한철 위원** 그러면 이 1만 2000m짜리 대형 물탱크차는 원래 규정에 없었던 겁니까?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이거는 제원119 지역대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여기에 안전센터를 신설하기 위해서 장비가 나중에 필요하겠다 해가지고 같이 동시에 본부에다 요청한 사항인데 지금 안전센터를 하는 것은 행안부까지 가서 승인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건 되지 않고 장비는 저희들이 이제…… 그쪽 제원에는 지역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원지역대에 배치하는 걸로 해서 물탱크를 한 대 추가로 받은 것입니다.

○ **신한철 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이 대형 물탱크 차가 없었던 거예요?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물탱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센터를 신설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소형 펌프 하나, 물탱크 하나, 구급차 이렇게 3대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가지고 물탱크 하나를 접수 대상

으로 신청했는데 우선 그게 먼저 선반영이 된 겁니다.

○**신한철 위원** 장비도 계속하시는 것도 좋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장비가 지원되고 갖춰질 수 있도록, 많은 지원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고맙습니다.

○**신한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신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완식 위원** 최장일 과장님께 여쭙보겠습니다.

무인 파괴 방수차가 권역별로 갖춰지게 되면 금산 여기까지, 금산 전 지역 도달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어디에 갖춰지게 되고 여기에 어떤 화재 시 도착 시간이 어느 정도나 예상되는지요?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최장일** 현재 무인 파괴 방수차는 천안서북서에 한 대가 있고요, 또 서산화학구조대, 중앙구조본부에서 운영하는 거 또 전북 익산에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충남에서 지원 나오기 좀 어렵고 우리가 광역 소방이다 보니까 대전에서 바로 지원을 나오는 체제고요, 현재는 한 대만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고가 장비거든요, 한 11억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확보해서 권역별로 4~5대 정도 배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계획은 잡고 있는데 금산 같은 데는 충남에서 지원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전에 있는 무인 파괴 방수차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완식 위원** 그러면 대전에서 여기까지 도착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최장일** 30분 정도 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30분이면 도착은 된다?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최장일** 예, 그렇습니다.

○**이완식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지금 우리 서장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가 지금 몇 층이죠?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여기가 2층입니다.

○**이완식 위원** 2층이요?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예.

○**이완식 위원** 만약에 지금 밖에서 화재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 저희들이 피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밖에서 화재가 발생이 됐다 그랬을 때 피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안에서 지금 화재가 발생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이완식 위원** 뭐 안에가 됐든 밖에 복도가 됐든 화재가 지금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대피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디로 어떻게 대피를 해야 됩니까?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우선 지금 보이는 피난계단 비상구를 통해서, 화점이 1층에 있느냐 3층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요, 지상층으로 가거나 옥상층으로 가거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완식 위원** (문을 가리키며) 지금 이 문을 열고 여기로 들어왔죠?

이 앞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어디로 대피해야 됩니까, 이 앞에서 지금 화재가 발생이 됐다고 쳤을 때?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그렇게 하게 되

면 창문을 통해서 탈출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완식 위원 창문으로요?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예.

○이완식 위원 창문 어디, 이런 창문이요?

어디 창문으로 어떻게 갑니까?

여기 2층이죠?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완식 위원 그러면 창문 열게 돼 있나요?

(○증인석에서 열립니다.)

열려요?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예.

○이완식 위원 열리고 뭐 계단 같은 건 있나요?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계단은 없습니다.

○이완식 위원 그럼 어떻게, 그냥 뛰어 내려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망 사건이 4건이나 발생했다는 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냥 사망사건 4건이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 이런 데에 심각한 생각을 안 가지시고 그냥 안일하게 생각을 가지셨다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이런 거 고민 한번 안 해 보셨습니까?

저런 상태가 벌어졌을 때, 지금 당장이라도 안 벌어지리라는 법 있어요?

뭐 화재라든가 사고가 예고하고 납니까?

어디 행정감사하는데 밖에서 화재 나서 거기에 어떤 ‘참사’ 이렇게 안 나라는 법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서장님은 그런 걸 고민하고 직원분들한테 교육하는 그런 정신이 중요하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완식 위원 이 소방서라는 데가 화재가 났을 때 그런 참변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대한민국 소방서가 왜 있습니까?

그래서 서장님이 여기 부임해서 오셨을 때 야, 이거 여기 와보니까…… 저는 지금 계단이라든가 개선돼야 될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데, 계단도 높이 한 12전 정도에서 15전 정도 높이가 인간으로서 상당히 좋게 느껴지는 높이인데 어떤 거는 그냥 높고, 뭐 출동하다가 그냥 넘어지고 그럴 것 같아요, 출동 그 자체부터도.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좀 개선을, 여기 이거 철거할 겁니까?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아닙니다.

○이완식 위원 이거 철거 안 할 거죠?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예, 그렇습니다.

○이완식 위원 그렇다면 빨리 그런 거 개선돼야 되겠습니까.

계단도 그렇고, 어떤 데는 막 높고 낮게 하지 말고 그런 거하고 여기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난할 수 있는, 저 쪽이 됐든 어디가 됐든 사다리라도 갖다 놓고.

여기 문 하나 만드는 건 쉽잖아요, 저런 거는.

그래서 뭐든 이 구조 자체를 여기부터 점검하고 시내라든가 어느 건물 또 개인…… 아까 사망사건 나고 그러셨는데 여기 소화기 비치됐습니까, 여기 주택에?

금산 지역 전 주택에 소화기 비치는 잘되고 있는지 점검하셨나요?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현재 사망사고가 났던 주택은 소화기가 없는 대상이었습니다.

○이완식 위원 아니, 현재 지금은요?

지금은 소화기가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지금 저희들이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완식 위원** 지금 화재가 즉시 발생했을 때는 소화기가 큰 사건을 방지한다, 골든타임, 역시 소화기뿐이다.

물도 없고 물 들어야 되지도 않고 소화기밖에 없다, 신속한 것은.

소화기도 흔들어봤는지 직접 그런 걸 점검해서, 의용소방대원님들이 잘 관리를 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생각부터, 조그만 것부터 그렇게 세심하게 생각을 가지시고 잘 좀 보살펴주세요.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예, 알겠습니다.

○ **이완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기서** 이완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철기 위원** 위원장님, 계속되는 질문 속에서 자료 미흡으로 인해서 감사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가 또 하나 금산소방서 구급 장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또 이 자료가 문제 될 듯해서 굉장히 불안한 심정인데요, 타 시도보다도 아주 적은, 2019년도에 구급 장비 요청이 없었고 2020년도에 없었고 2021년도에 7건, 2022년도에 65건 인데요, 타 시군은 이번에 구급 장비 3232건, 3094건, 4383건, 2400건, 2192건 이렇게 자료가 제출됩니다.

금산소방서는 구급 장비 65건, 이렇게 부족하게 신청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위원님 그 내용을 제가 파악 못 하고 있어서요, 해당 팀장이나 과장이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

니까?

○ **위원장 김기서** 예,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까 얘기했던 개인 보호 장비 신청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 **조철기 위원** 예, 소방 장비 구매 현황.

자료가 계속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소방서 행정감사의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 **위원장 김기서** 예, 위원님.

○ **조철기 위원** 일단 한번 답을 해 주시죠.

○ **현장대응단장 한창엽** 금산소방서 현장대응단장 한창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 것 같…….

○ **조철기 위원** 자료는 보셨어요, 1671페이지?

○ **현장대응단장 한창엽**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조철기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결과가 나오면 자료가 미흡한,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하고 상이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의 소방서 행정감사가 의미가 있겠는가 이런 문제점을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김기서** 저희가 올해 첫날이고 논산과 금산을 이렇게 왔는데, 내일은 또 다른 지역의 일정이 있을 텐데 특히 다른 사항보다도 개인 보호 장비 구매 현황 관련해서 과장님, 저희가 내일 부여를 가잖아요.

부여를 가기 전에 이 자료를 다시 한번 요구할게요.

그동안 있었던 자료는 혼란스럽고 부정확하고 오류가 있었던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자료를 지금이라도 만들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앞으로 이게 정립이 안 되고서는 다음 소방서에 우리 행감의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료에 오류가 많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제가 주문을 드리는데, 내일 저희가 출근하기 직전에 이 자료를 시군별로 다시 한번 파악해서 정확한 걸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최장일 예,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이게 오류가 너무 심하고 편차가 너무 심해요.

제가 봐도 이걸 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값이 아닌 것 같아요.

조철기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 내일 저희가 부여 행감하기 직전에 시군 거를 다시 한번 포괄적으로 제출해 주셔서 앞으로 행감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자료를 내일 아침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소방행정과장 최장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우선은 그렇게 조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조철기 위원 예.

○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어떻게 질의는…….

○조철기 위원 예.

○위원장 김기서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금산을 와보면 소방과 관련된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한국타이어 아침에 뉴스, 방송에서 봤던 옛날 금산의 큰 화재 또 대전 한국타이어 큰 화재 이게 자꾸, ‘무슨 때 되면 한국타이어는 불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여기 제일 큰 기

업이 한국타이어죠?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또 두 번째나 세 번째 그만한 규모를 가진 기업이 있나요?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그 외에는 대부분 고만고만한 중소기업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그런데 왜 이렇게 한국타이어는 금산에서 한 번 불나고 대전에서 한 번 불나고, 왜 이러죠?

혹시 소방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그 기업이 사실은 20여 년 전에 제가 당직관 할 때 불이 나가지고 저도 명확하게 기억을 하는데요, -저도 현장에서 밤을 샜지만- 그 뒤로 사실 한국타이어에서도 그렇고 안전관리 쪽을 굉장히 강화해가지고 업무추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재 이후로는 순수한 어떤 화재라든가 이런 것도 없었고, 저도 최근에도 거의 2~3달에 한 번꼴로 훈련이든 뭐든 해서 한국타이어에 나가 보고 있는데 지금은 예전하고는 많이 다르게 안전관리팀도 보강하고 또 공장장 의식들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예전하고는 다르게 시설 보강이라든지 직원들이 받아들이는 화재에 대한 느낌이 달라졌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예.

○위원장 김기서 우리 충북에 영동, 옥천이 있고 전북의 완주, 진안, 무주군이 접하고 있는데 아까 서장님께서 차량도 지원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고 행정과장님은 장비까지도 지원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게 언제부터 풀린 건가요?

옛날에는 도 간 그게 잘 안 됐잖아요.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광역이 되고 나서…….

○ **위원장 김기서** 아, 참, 광역 단위.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90년대 이후로 사실 서로 요청에 의해서 할 수는 있었는데 어떤 경우에는 시도지사 권한에 의해서 지원 안 해 주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방청이 되면서부터는 저희들이 국가직이 되다 보니까 이걸 그쪽에서 협조를 해 주고 안 해 주哥的 문제가 아니라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 **위원장 김기서** 청에서 컨트롤타워가 되니까 이제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가라고, 업무적 지휘가 그쪽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그 말씀이시죠?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기서** 그리고 업무보고서 172 페이지를 보니까요, 질병 환자가 많네요.

질병 환자가…… 저는 이제 당뇨는 이해하겠어요, 당뇨는 혈당이 떨어진다가 심장질환은 이해가 되는데 고혈압이 746명이다, 질병 환자인데, 고혈압은 어떻게, 판명이 돼서 나중에 고혈압인 걸 아는 거지 어떻게 출동하게 되죠, 고혈압 환자는?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대부분 금산 지역에서는 이걸 이용하는 층이 고령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병원 진료라든가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 기록이 저희들에게 다 남습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기존에 앓고 계시는 질환이라든가 이런 걸 다 체크해가지고 입력하기 때문에 다 파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기서** 지금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혈압이…… 그러니까 우리 시군

에서는 보건소에서 100원 택시든 얼마 택시든 타고 환자분들이 보건소로 가서 진료를 받고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746명을 이송하게 되는 과정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혈압이 높으면 그냥 혈압이 높은 거고 자기가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는 건데 우리가 고혈압 환자를 이송해 줬다?

그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저혈당에 빠진 당뇨 환자 그러니까 뇌경색이라든지 심장질환인 사람들은 이해가 가는데, 고혈압 환자를 746명 이송해 줬다는 거에 대해서 좀 의아심이 들지 않아요?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시골 지역이다 보니까 정서적으로 고령이신 분들이 신고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데 “나 아프니까 병원을 가야겠다” 이렇게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걸 사실은 “덜 아프시니까 저희 구급차 이용 못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 **위원장 김기서** 제가 그거와 맞물려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벌집 제거예요.

이 옆에 있는 논산은 잠금장치 개방이 타 지역보다 너무 많아요, 392개, 9월 30일까지.

여기는 1251건이에요, 작년에는 957건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아까 존경하는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필요해서 도움을 주는 거와 만연이 돼서 젖어 있는 거, 그러니까 “야 저쪽은 문이 닫혀 있어도 소방서에서 문 열어준대, 그쪽에다 연락해 봐, 그러면 문 다 열어준대” 이거하고는 다르다는 개념을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소방 인력이 바쁘고 진짜 본연의 업무가 따로 있는데 고혈압 환자 또 벌집

제거 이런 게 너무 일반화되다 보니까 문제가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딱 잘라서 이견 되고 이견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조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캠페인을 하는데 우리가 직접적으로 금산 군민한테 할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면장·이장 이런 회의 때 소방서에 가서 자문을 구하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정작 필요한 출동이나 인력이 누수가 될 수 있다, 우리의 역량이 빠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지금 고혈압 환자, 벌집 제거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만연돼 있으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말씀…….

○**위원장 김기서** 이게 너무 흔하면 당연한 걸로 하다 보니까 너무 일반화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소방 업무 보조 역할 강화 해서 겨울철 제설 작업 지원단이 3개가 있고 중장비 지원단을 만드셨는데, 여기 대원 14명이 제설 작업 지원단하고 중장비 이쪽에 지금…….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본인들 직업이 관련 업종이고 본인들 장비가 있어가지고 그분들 협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연간 500만 원 정도 중장비를 빌려서 쓸 수 있는 예산은 있는데, 요즘에 웬만한 화재는 다 포클레인이라든가 이런 장비가 없으면 사실 작업이 어렵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해서 하는 건 어려워서 가끔 이분들의 협조도 얻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분들 쓰고 시군 예산을 조금 얻어 와서 대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그러면 여기 굴착기, 크레인, 지게차, 트럭은 누구 소유예요?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이거는 의용소방대 개인들이 갖고 있는…….

○**위원장 김기서** 아, 의용소방대 개인들…….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예, 의용소방대입니다.

○**위원장 김기서** 아,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렇게 해서 지역의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준다 그 말씀이시죠?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그리고 제가 끝으로 논산소방서에서 드린 여러 가지 공통된 사항을 아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협력을 하셔가지고 개선돼야 될 부분은 지금 충청남도 시군에 다 적용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방서장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같이 공유하셔가지고 개선돼야 될 부분 또 우리가 집중해서 역량을 모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같이 공유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타이틀로, 그러니까 서장님께서 조직문화를 위해서 이렇게 타이틀을 넣으셨는데 ‘청렴하고 공정한 직장 문화 조성이다’ 이렇게 해서 제1번 타이틀로 넣은 소방서는 금산소방서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서장님이 갖고 있는 자기의 가치와 철학이 우리한테도 느껴지고 여기 계신 팀장님이나 과장님께도 영향

을 지금 미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타이틀은 너무 잘하시는 거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아까 올라오면서 보니까 -저도 과거에 총무·기획 업무를 오래 봐가지고- 여기에서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고 비좁고 오래되고 이런 건물인데도 관리가 좀 잘 돼 있다, 그래서 청소 상태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같이 쓰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공직자들의 관심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서장님께서 리더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드리고요, 끝으로 별관을 짓는데 앞에 쓰던 이 건물도 좀 잘 활용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별거 아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조직에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내는 성과와 역량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직장 분위기로 그런 문화로 앞으로 가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앞에서, 논산소방서에서 뭘 하나 지적했는데, 지금 마이크 시스템 보세요.

여기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때, 여기 설계 공모 당선작이 전남 소재의 '창건축사사무소'가 했다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경찰청 같은 데는 이게 다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충남에 이런 건축이라든지 토목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런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면 비용을 줄이면서 모델을 만들 수가 있다면 저도 그게 좀 괜찮지 않을까, 고민할 이유도 없고 거기에 기준 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제시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효율적인 조직으

로 거듭나려면 그런 노력, 관심도 이런 것 좀 가져 주시기를 바라고요, 서장님께서 고향이 금산이셔서 더더욱 애착을 가지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잘 살려서 후배 공직자분들한테 그런 가치·철학 이런 거를 대물림해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기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용국 위원** 조금 전에 사설 업체 관련 부서를 제가 복지환경이라고 그랬는데요, 보건정책과거든요.

이거 한번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혹시 금산소방서에 관련된 민원을 받는 곳이 따로 있습니까,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는 소통 창구가?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소통 창구는 지금 민원팀이 따로 있고요, 예방팀에서 민원을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저희들 홈페이지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받고 민원을 받고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용국 위원** 홈페이지로는 제가 확인했는데 민원이 접수되는 게 거의 없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소방서를 찾아온 다든지 소방서 관내에 혹시 민원 창구가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쭙보는 거고.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별도의 창구는 없습니다.

○**이용국 위원** 없으시죠?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예.

○**이용국 위원** 군민들의 민원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 하나 꼭 당부를 부탁드리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을 하고 계신 거 알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서 마무리할 때 우리 군민들한테 좀 더 친절히 해 주시고 좋은 말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서** 조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철기 위원** 한 가지 부탁의 말씀도 될 것 같고요, 2021년 9월에 금산소방서에서 치매 노인 구조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를 낸 적이 있죠.

그래서 홈페이지에 보니까 “소방서 거짓말” 이렇게 해서 올라와 있었어요.

우리 간부님들, 그 사실 모르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알고 있죠?

그래서 경쟁이 지나치다 보면 우리 금산 군민들에게 호도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된다고, 아닌 것을 그런 것처럼 언론에 보도해서 이게 다시 되돌아왔을 때는 우리 소방대의 사기 진작에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과열적으로 경쟁의식은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금산소방서장 진종현** 예,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기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산소방서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금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종현 서장님을 비롯한 소방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대책을 수립하여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는 알차게 마무리하여 주시고 동절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산소방서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7인)

김기서 이완식 고광철 김도훈
신한철 이용국 조철기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병용

○ 피감사기관참석자

〈금산소방서〉

서장 진종현
소방행정과장 김재완
현장대응단장 한창엽

○ 기타참석자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장 최장일